

제19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콜로키움

# 한국인의 시민성, 코로나 그리고 "좋은 국민"

📅 일시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 발표 | 임동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참여 | 비대면 웹세미나(ZOOM)



## ● 발표자 |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심리학, 정치사회학, 사회이론과 방법론이다. 사회문제들이 보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미시적 기초와 제도에 관심이 있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방법론적 개선 방향”(2021),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 (2021), “Similar but Different: Uncovering the Multiple Pathways to Life Satisfaction in Asia“ (2020) 등이 있다.

## ● 발표내용

현대 사회문제의 복합적 문제들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나 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이 각광을 받아왔다. ‘시민성’ 개념은 그러한 여러 가치들을 시민들이 가지거나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자 정체성, 실천적 태도로 압축하여 제시해준다. 시민성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와 같은 의무인식을 아우른다. 그 안에는 개인주의부터 공동체주의까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질서 의식 부터 이상적 삶의 모습을 추구하여 자아실현을 하는 것까지 다차원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다양한 사회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 ‘좋은 국민’이 가지는 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본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난 사회적 방역에의 참여와 시민적 의무 인식과의 흥미로운 관계, 그리고 KGSS 자료를 사용해 분석해본 한국인들의 시민성 유형을 살펴본다. 사회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시민성 내부에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며, 시민성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인식이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시간에 따라 그 다양성의 모습 또한 변해왔음을 보여준다.

## ●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설치 후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링크: <https://han.gl/4tkcP>



## ● 향후일정

- 제20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콜로키움 | 김지혜(강릉원주대 교수)  
2021년 6월 23일 개최 예정
- 제21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콜로키움 | 양승희(대전세종연구원)  
2021년 7월 14일 개최 예정